

리동화 선생

리동화 (본명 - 리와실리 페도로위치)
 선생은 1901년에 원동변강 유대인 자치주
 블라고웨센스크 군 블라고블라웬노예 호에서 한
 생하시었다. 소련 출신 한국인들은 자기들중에서 사발리
 출신 한국인들에 대하여 논여하고 있으나, 이 한인들은 19
 세기 말엽에 한국정부에서 러시아정부와의 협약에의
 하여 약 천명의 한인가족들을 원동변강 니콜스크 시
 부근에 배여 실어다가 이주시켰다고 하는데, 이 들어 몇을
 동안, 몇리나 왔는지 몰라 그들의 짐작으로 약 나발리
 정도 왔다고 해서 이 한인들은 사발리 집단이라고
 한다. 이들의 특징은 한국말은 전혀 모른게다 (그렇지 아니면)

리동화

전혀 러시아어 리로 한국말로 대강 외우는 사람들도다.
이러한 러시아어는 참 러시아 언들과 똑같이 회화도 능숙하다.
리동화 선생도 어항에서 지극한 사발로 출생하다.
리동화 선생은 한국학교에러한 전혀 단려본일르었다.
리 선생은 항촌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어 초등학교를
마감하고 근노재지인 블라디보스톡에서 초중,고중을
필한다음 1922년 부터 소련군에 동병되여 1925
년까지 복무한다음 1925 부터 1928년 까지 소련군
학교에서 공부하고 1929년 부터 1931년까지 계속
소련군대에 장교로 복무하다가 1931년에 소련
군에서 재대퇴하여 시베리 대도시 이르쿠츠크시
에 의학대학에서 5년간 공부한뒤 다시 그 대학
을 1937년에 필한다음 다시 군대에 입대하여 군
의료사 복무하게 되었다. 1941년에 소련 조국전
쟁이 시작되자 리동화 선생은 인민방위 제 1
전선 사령부 산하 제 88 여단 중위로 배치
되 되었다. 88 전투경찰 여단은 다대부중국어
를라 한국 백일치산 대항으로 조직된 여단이었어
어 여단에는 홍국의 유명한 백일치산 영웅 극보문과
김일성 백일치산 대대로 형님 되어 있다. 이 독립대
대에서 군의 대대장으로 계신 리동화 선생은 항상
인대대인 김일성 대대에 관념을 두고 복무하시었다. 리동
화 선생은 여단 직속 독립대대장 겸 여단군의
노장으로 김일성 대대장에 배하여 군사 계급이

그렇지 아니면 완전한 러시아 어치로 한국말을 대강
발음하는 사람도이다. 이들은 언어변에 들어가서도
아 인들의 똑같이 회화하는 부류이다.

리동화 선생은 어삼에서 발흥드린 사발리 출신
이다. 리동화 선생은 한국학교란 전혀 학교를
드 가본적이 없다. 선생은 함흥 불타고 서울 벤노에
서 소학교 와 농공을 마갑한 다음 군노래지인 불타고

우시센스크에서 의학전문학교를 1926년에 졸업했다.
의학 전문학교 졸업 이후 소련군에 군의로서 계속 1930
까지 복무한 다음 소련군대내 모병적 일꾼으로 서,
비리아 중앙도시인 일꾸스크시 의학대학 예과에 타
견되어 월년간 공부한 다음 1931년부터 1936년
까지 대학 내과를 무능한 성적으로 졸업한 다음 그

의대 내과 연구원으로 재타서 1937년 12월까지 복
류한 다음 소련군 군의로 복무하게 되었다. 1937년 8
월 이후 소련 원릉변강 지역에 살고 있는 전치 한인들
을 중아시아, 기작크란 지역에 강세어주 하였으나
리동화 선생의 가족은 계속 일꾸스크시에 살고 있었
으며 리 선생은 계속 군대에 복무하였다. 1938년
8월에 리 선생은 그 선생이 배속된 군대와 같이
원릉 변강 블라지워브스크에 이릉되어 왔다가 월
제 군대의 최번으로 야기된 하산 권후에 참전하였다.
이때에로 리 동화 선생의 가족은 계속 이르꾸겐크에
계했다 이때 다른 한인 가족들은 중아시아에 살게

들어와 이주 약대한 고향들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리동화 선생의 가족만은 일주초시에 살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평화롭게 학교에 다니었다. 하산 권속가 끝난 다음 초련군 25군단은 제 1 권속에 속하여 있던 몇개의 경찰구분대들과 풍족출신 활로운 소속구분대들을 결속하여 초련군 88 경찰 여단은 1938년도에 조직하여 휘하 룡산군시 동남부군 약 607킬로미터 원적한곳 워드소코 초 산림속에 주둔 식했다. 이 당시 이 여단의 책임군의 장 겸 군의노소장으로 한인 리동화 선생이 계셨다 당시 리동화 선생의 군사계급은 소좌였다. 여단이 조직되며 몇해 경과한 다음 김일성이 영솔한 일제 대대 권역 발달시킨 후대는 동만주에서 함일독쟁을 전개하다가 밀레 권벌의 후발에 권달수없이 1940년 초만주국을 넘어 초련 영초에 월경하다가 초련국경 수대에 붙잡혀 원릉 울타리 보소로 부근에서 야영-유형 생활을 하면서 체포원에게 일하였다. 이에 대한 소식을 정보 받은 주북은 여단장은 군단리근부에 보증을 언변하고 김일성 대대 상원토로 전복다 이등식해 자기 여단 일대대로 편입시켰다. 이것이 바로 1941년이었다. 한인대대가 여단에 편입된 것을 리동화 선생은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김일성 대위와 아주 친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상 의 조성된 환경을 리동화며 초련 권속 경찰계통은 초련에 살고있는 많은 한인 청년들을 증병하여 모스크바에 주재하여 있는 경찰학교에서 일년간의 강

석희 88 경찰 여단에 파견하곤 하였다. 그 결과
 유성철, 정복준, 김창국, 리종현, 최현, 김예림, 신봉남 등
 많은 동부들이 파견되었다. 그중 많은 동부들은 경찰의 업무
 행정 일제에까지 왜곡되어 감옥에서 회상을 나갔하였다.
 이 외에도 조선정부는 극대 혁명 자속원회 제흥, 극대공산당
 제흥 등으로 통하여 조선에서 큰이런 많은 간부들을 조선에 파견
 하여 사임하였다.

1945년 8월 이르자 조선 원동변강 하마콤소크시
 복근 와드스끄에 솔네 노래하여 1941-45년 기간에
 군사 의무를 수행하던 88 여단은 상부로부터 해산
 명령이 하달되었다 그것은 중국과 조선은 대상으로
 할 의무를 수행하던 것이 1945년 8월 15일에 두나라가
 완전히 일제에서 해방되자, 여단의 전후 의무가
 끝났기 때문이었다. 조선 원동 제1원선 사령부는 그 여
 단에서 복무하던 전체 황천으로 민족별로 갈라 한국인
 들은 조선으로, 또 중국인들은 후보군 여단장의 지휘하에 중
 국으로 보내주어야 하였다. 김일성 대대 성원들과 그 여단
 단 각부에서 복무하던 전체 한민들은 블라지워브스크에서
 관대 화물선 "백가초백"을 타고 1945년 9월 19일 (음력으
 로 8월 15일 추석날) 에 원산항에 상륙하였다. 원산에 도착
 한 김일성 대대 소속 한민들은 원산 시 연립 위원회의 큰
 환영을 받은 후 그날 저녁으로 출발하여 9월 20일에 평
 양에 도착하였다. 이 때 리동화 선생도 김일성 대
 대 성원들과 같이 동행하였으나 리동화 선생은 김일

성대대 성원은 아니었다. 다음 김일성이 쓰할린의
 임명으로 북한리 지도자로 들어선 다음에 공산당북선
 분국의 조직된 이후 리동화 선생은 김일성의 알선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북선분국 조직부장 직책에 임명되었다.
 리동화 선생은 청년시절 학창생활을 하시면서 레닌
 공청회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시었고 다음 의학전
 문 학교를 졸업한 이후 당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시
 었다. 그러나 그 당시 당사업이란 당총회나 당위원장
 이 요구하는 당적위업이나 실행하는 정도였다. 리동화선
 생은 자기 분신 사업에 대하여서는 아주 책임성있게 자
 기 자책에 대하여서는 모구하렷지만 학업들에 대하여서는
 강한 책임적 부담을 하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당조직사업
 을 해나였다. 1945년에 일제가 패망되자 조선어해
 방 되고 전체 조선업민들에게 해방을 주자, 조선언론
 은 자기 자책이 국가도 당도 조직하고 그를 영도 하여야
 했으나 누구나 그들을 영도하는 직무에서는 일한 경험
 없었다. 리동화 선생은 개성이 특출하고 또 나옴도
 어지다 보니 당조직사업을 할수없으리라고 김일성
 아는 중경화는 이에서 리동화선생을 중앙당조직
 부장으로 임명하였다. 당조직지도부란 중앙당각부
 들을 지도하는 부서이, 다른부들은 조직부의 사업계획
 에 의하여 움직이게 된 원칙이다. 그런데 당사업
 경험어 적은 데다 조선말을 풍악하게 소음한분
 이지, 또 그 외에 반노분과 김창환이 같은 당정
 치위원은 노골적으로 배척고 단념했다.

1948년에 중앙정부가 구성되던 일선군대가
 완전한 계층 체계를 가진 다음 리종화 선생은 자
 원적으로 당조직부를 내어 놓은 조선업민군 군의총
 국장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때부터 리종화 선생
 은 활기 있게 자기 사업들을 조직 전개하였다. 특히
 1950년에 남북조선간 동족상쟁이 발발하자 전
 선은 멀리 남한으로 나가게 되고, 또 후원을 위하여
 한 각사회의 국가들에서 조선 "해방" 전쟁을 응원
 하는 의미에서 야전병원들을 수백여 조직하여 북한
 에 파송하였었다. 이때에 리종화 군의총국장의
 역할이 아주 대단하였다. 우선 조선전쟁의 기본 장병
 인은 소련인것만 믿고 모든 군의 계층 등제는 최고 사령부
 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소련 대령들과 흔히 결의한
 다음에 김일성에게 보고하였었다. 조선전쟁 3년간
 리종화 선생은 계속 전선 야전병원들에 돌아간
 나머지 그 험란한 항공기 기습과 포탄 폭탄이 될
 사이 없어 죽되리는 전선 각종차 길을 줄 줄이 단
 나며 병을 내걸고 큰 고생을 하시었다. 북한에
 야기된 동족상쟁은 무한한 인적-경제적 자원
 을 없애버리고 전쟁이 시작된 그 자리에서
 정전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자
 북한 로동당은 일선들의 사상 검열나업으로써
 하였다. 이것은 김일성주의 반대파를 생산할
 목적으로였다. 조선 로동당은 남한 출신, 중국 출신으로

다 참산 한다음 1956년 북의 조선 출신 간부들로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원래군대까지 사상 검문 사업은 김
 남만 방포라 거둬가 총리로 하였다. 사람에 대한 총력 생
 활의 과정에서 기별 방향과 원칙은 한가지라 할지라도
 그 원칙과 방향을 달성함에 있어서 약간의 비견적
 차이나 견해 차이가 있는바이다. 조선간부들은 조선
 영토에 들어 서리전에 북의 조선공산당의 견고한 지시
 를 받은것이다. 그것은 "북한에 나라 통일을 다하여
 공산당의 원칙을 쫓아내, 김일성은 죽어 말하라는것"
 이었다. 만일 북의 조선 출신 간부들은 두루나 다 통일
 하게 말하였다. 그런데 당 사상 검문 지도자들은 아득
 한 당적 원칙과, 인간원칙으로 위반하리 예나한 사람으로
 "조선가족주의", "조선에 대한 상대주의", "조선역관
 로주의" 등 원칙으로 위반하면서 철적, 강적 등
 눈에 유행사리를 볼때, "하북실정을 본르기 때 북의
 하북 능률에 내리자, 사상 계교양을 받은 다음 다시
 강행"하라는것이었다. '이상에 지적한 허무하고 죄도
 아닌' 죄명을 씌운 이후에 리동화 선생께 향하여서는,
 조선에서 나온지 십여년이 넘는 사이에 조선말을 전혀
 회유지 않고 모국어로 비약하게 설명하여, 물건 작성을
 잘하지 못한다는 "죄"를 더가하여 회의록에 기록하였던
 것이다. 만세 북의는 평양에서 살지 말고 농촌 내의
 가보흥의사로 일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리
 동화 선생은 북한에서는 더 살수 없었다. 농촌으로 가족을
 데리고 내려간다는것은 조선군대 중좌승급에서 아무런
 예치로 받지 못하고 정례적 앞길에 완전히 막혀는 것이었다.

당시 리동화 선생은 소련군대 레대비와 월급만 받고 산다고 하여도 소련 중등간부 정례회장비와 비슷하였다. 리동화 선생은 하은숙 없이 평양주재 소련 대사관을 통하여 소련 외교소베는 상임위원장과, 소련 무력성에 청원으로 제출하여 소련국적 회복과 소련 귀환 허가를 요청하였다. 1960년 7월에 리동화 선생이 제출한 귀국청원에 배준이 나와 동년 10월에 소련 모스크바에 전 가족이 귀환하였다. 리동화 선생은 모스크바 무력성에서 월급 제정에 대한 물건과 사택비정에 관한 물건들을 받아가지고 카자흐 공화국 알마아타에 귀환하여 도인민위원회 부전부장으로서 계시다가 1965년에 퇴근하시고 월급생활에 들어가 1980년 까지 무사히 지우시다가 동년 2월 16에 별세하시었다. 형제 알마아타에는 아들 형제와 딸 삼례가 살고있다.

15/II-20001. Тамбулт